

'800년 전 제주, 고치 살았수다' 활용 가이드

기획 의도

'800년 전 제주, 고치 살았수다' 교육상자는 삼별초 입도부터 목호의 난까지 약 100년간 고려시대 제주의 사회·문화를 다루고 있다.

13세기 후반 고려는 몽골의 침략을 받아 40여 년 동안 끈질기게 싸웠지만, 결국 굴욕적인 화해를 하게 된다. 그 뒤 고려는 80여 년 동안 몽골의 간섭을 받게 된다.

제주의 역사 속에도 몽골과 만나고 교류했던 약 100년 동안의 시간이 존재한다. 제주는 바닷길의 요충지에 자리했다는 지정학적 중요성과 마(馬) 방목지로서의 가치로 인해 몽골과 고려라는 외부세력의 주도권 다툼이 이루어지는 무대가 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제주와 몽골의 만남은 갈등과 대립으로 시작되었지만, 제주 사회의 규모가 커지고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는 등 발전과 변화의 계기로 작용하기도 했다. 제주 사람들과 몽골 사람들의 문화적 교류는 100년에 그치지 않고 이후에도 오랫동안 제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제주와 몽골의 만남이 100여 년 이어지는 동안 두 이질적인 사회 간에 어떤 일상적 교류가 있었는지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 보고자 한다.

교육상자 구성 및 사용법

구성		사용법
 이동형 교육상자	 문화유산 교구재 4종	· <항파두리성 갑옷>, <법화사 출토 용무늬 막새>, <몽골병>, <고소리> 복제품 4종으로 구성 · 복제품에 대한 상세 설명을 참고(3쪽)하여 관찰 및 문답식 수업 활용
	 동영상 학습자료 1종	· 삼별초 입도 ~ 목호의 난까지 제주의 모습을 보여주는 동영상 학습자료로 구성 · 동영상 학습자료에 등장하는 장소 및 연계 질문을 참고(3쪽)하여 문답식 수업 활용
	 체험 교구재 2종	· ① 이야기 카드(장소 카드 4장, 문화유산 카드 4종, 행동 카드 10종, 인물 카드 10종, 감정판 1종), ② 이야기 블록으로 구성 · 동영상 학습자료 시청 → 이야기 카드를 조합해 800년 전 제주 마을 상상하기 → 이야기 블록으로 800년 전 제주 사람들의 생활 모습 표현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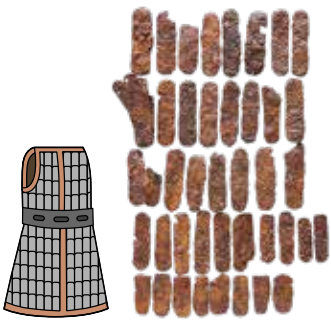
교수학습과정안

관련 교과	사회, 미술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4사02-02]	오래된 물건이나 자료들을 주변에서 찾아보고, 이를 통해 과거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음을 이해한다.
	[4사03-02]	우리 사회에 다양한 문화가 확산되면서 나타나는 긍정적 효과와 문제를 분석하고, 나와 다른 사람이나 집단의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4사06-01]	지역의 문화유산을 통해 문화유산의 의미와 유형을 알아보고, 문화유산의 가치를 탐색한다.
	[6사04-03]	다양한 역사 자료를 활용하여 고려 시대 사회 모습과 사람들의 생활을 추론한다.
	[4미02-01]	관찰과 상상으로 아이디어를 떠올려 표현 주제를 구체화할 수 있다.
	[6미02-01]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연결하여 확장된 표현 주제로 발전시킬 수 있다.
수업목표	제주와 몽골 사람들이 과거에 함께 어울려 살았다는 사실을 알고, 다문화 사회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다.	
수업 흐름	교수학습활동	교육상자 자료
도입	• 흥미 유발하기 - 문화유산 교구재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흥미 유발하기 ※ 이것은 무엇일까요? 언제 어떻게 쓰였을까요? ※ <활동 자료 1> 참고 항파두리성 갑옷 법화사 출토 용무늬 막새 몽골병 고소리 • 이야기 열기 - 몽골과 제주의 과거 소개하기 ※ 이 물건들은 800년 전 제주에서 쓰던 물건들이에요. 이 물건들은 어떤 사람이 사용했을까요?	문화유산 교구재
전개	• 동영상 학습자료 시청하고 이야기 나누기 - 영상 속 장소를 중심으로 사실 확인 질문과 생각 더하기 질문을 활용하여 감상 나누기 ※ <활동 자료 2> 참고	동영상 학습자료, 문화유산 교구재
	• 제주와 몽골 사람들이 함께 사는 모습 탐구하기 - [이야기 카드 활용] 모둠별로 장소·문화유산·행동·인물 카드 1장씩 뽑기, 감정판에서 감정 1개 선택하기 - 뽑은 카드를 활용하여 제주와 몽골 사람들이 함께 사는 모습을 나타내기 ※ <활동 자료 3> 참고 ※ 물음표 카드를 이용하여 제시된 이외의 내용을 직접 상상해 나타낼 수 있음 누가(인물), 어디서(장소), 무엇을 하며(문화유산, 행동), 어떤 기분이었을까(감정)?	이야기 카드
	• 제주와 몽골 사람들이 함께 살았던 마을 상상하고 표현하기 - [이야기 블록 활용] 제주와 몽골 사람들이 함께 살았던 마을을 블록으로 표현하기 - 친구들과 감상 나누기 ※ <활동 자료> 4 참고	이야기 블록
정리	• 활동 소감 나누기 - 활동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 느낀 점, 더 알고 싶은 점 이야기 나누기 -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어울리는 자세에 대해 생각해보기 ※ 옛날 사람들도 서로 다르지만 친구가 되어 함께 살았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친구가 되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 교육과정에 따라 자유롭게 변경 가능

활동 자료

<활동자료 1> 문화유산 교구재 설명



항파두리성 갑옷

비늘갑옷은 물고기 비늘 모양의 작은 철판에 구멍을 뚫어 가죽끈으로 이어 만든 갑옷이다. 고려시대 군사들은 전투에서 몸을 보호하기 위해 비늘갑옷을 입었으며, 항파두리성에서도 철판으로 만든 비늘갑옷이 발견되었다.



법화사 출토 용무늬 막새

막새는 지붕의 처마 끝을 장식하는 기와이다. 법화사에서는 왕실을 상징하는 용무늬 막새기와와 봉황무늬 막새기와가 함께 발견되었다. 두 문양은 건물이 지닌 권위를 잘 보여준다.



몽골병

몽골병은 그릇 어깨 부분에 네 개의 고리가 달린 항아리이다. 몽골 병사들은 병 고리에 끈을 달아서 들고 다니거나 말에 걸어두고 다니면서 물이나 음료를 마실 때 사용했다.



고소리

고소리는 술을 증류해서 소주처럼 도수가 높은 술을 만드는 도구이다. 고려시대 몽골 사람들이 술을 끓여서 만드는 증류법을 전해줬다. 제주 사람들은 고소리를 이용해 제주 전통술인 오메기술을 증류하여 독한 고소리술을 만들었다.

축소 복제
(실제 크기: 높이 55cm)

<활동자료 2> 동영상 학습자료 등장 장소 설명 및 연계 질문



장소	사실 확인 질문	생각 더하기 질문
 국립제주박물관 전시실	• 이 장소는 어디인가요?	• 지금 주인공의 기분은 어떨까요?
 향파두리성	삼별초가 여원연합군에 맞서 싸우기 위해 만든 성으로, 내성과 외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향파두리성은 애월읍 해안에서 3km 정도 떨어진 낮은 언덕에 있어 적의 침입을 관찰하기 좋은 위치에 있다. • 주인공은 갑자기 어느 시대, 어느 장소로 가게 되었나요? • 주인공은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나요? •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 탐라 사람들은 삼별초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 삼별초와 여원연합군의 전쟁에서 누가 이겼나요?	• 탐라 사람들은 성을 쌓을 때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을까요? • 탐라 사람들은 삼별초와 여원연합군의 전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을까요?
 국영 목장, 마을	아막은 목장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고려 충렬왕 때인 1276년, 원나라는 목호와 말 160마리를 보내 제주 각지에 몽골식 말 목장을 세웠다. 이때 수산평에는 동아막을, 고산리에는 서아막을 설치해서 각 지역의 목장을 관리했다. • 주인공은 갑자기 어느 시대, 어느 장소로 가게 되었나요? • 주인공은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나요? • 솔롱고의 가족에 대해 말해봅시다. • 마을에서 사람들을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 전쟁 이후 제주 땅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 탐라 사람들은 목호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나요?
 법화사	고려 후기 제주를 대표하는 절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세운 특별한 절 중 하나이다. 원간섭기 때 절을 수리하면서 원나라 양식의 기와를 사용하고, 원나라 장인이 만든 불상을 모셨다. 제주에 살던 원나라 사람들의 종교적 안식처이자 구심점 역할을 했다. • 사람들은 무슨 소원을 빌었나요? • 주인공은 무슨 소원을 빌었나요?	• 사람들이 소원을 빌고 있는 법화사는 어떤 곳이었나요? • 주인공이 그 소원을 빈 이유는 무엇일까요?

 범섬	목호의 난 때, 고려 정부군과 목호들이 마지막까지 싸우던 장소이다. 목호의 난은 고려 공민왕 때인 1374년 제주도에 살던 목호들이 일으킨 반란이다. 목호들은 최영 장군이 이끄는 고려 정부군과 제주 곳곳에서 치열하게 싸웠지만 결국 범섬에서 패배했다. • 고려 관리가 마을 사람들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인가요? • 솔롱고의 아버지는 어떤 선택을 했나요? • 목호의 난은 어떤 순서로 일어났나요? • 고려 군사와 목호의 싸움에서 누가 승리하게 되었나요? • 솔롱고의 아버지는 왜 자신의 뜻을 지키려고 했을까요? • 솔롱고가 전쟁에서 승리한 고려 장군과 군사를 볼 때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 목호의 난이 끝나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국립제주박물관 전시실	• 박물관에서 주인공은 어떤 물건을 다시 보게 되었나요? • 주인공과 친구들 사이에 무슨 대화가 오갔나요? • 주인공처럼 낯선 친구에게 용기 내어 다가가 본 적이 있나요? • 서로 다르지만 친구가 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야기 카드

이야기 카드를 뽑아 800년 전 제주에 어떤 일이 있었을지 상상해 보세요.

장소

문화유산

감정

행동

인물

누가(인물) 어디서(장소) 무엇을 하며(문화유산/행동) 어떤 기분이었을까?(감정)

<활동자료 4> 이야기 블록 활용 방법

큐레이터 활동

우리 마을을 소개합니다.

- ① 모듈별로 만든 블록 마을을 자세히 관찰하며 어떤 집, 장소, 인물, 물건이 있는지 정리한다.
- ② 큐레이터처럼 각 부분에 이름을 붙이고 설명할 말을 써본다.
예시) 이곳은 몽골 가족의 집입니다. 안에서는 음식을 하고 있어요.
- ③ 친구들에게 마을을 소개한다.

역할 놀이 활동

이 마을에 사는 사람은 누구일까?

- ① 모듈별로 맡고 싶은 인물을 정한다.
- ② 그 인물의 하루를 상상하여 짧은 상황극을 만든다.
예시) 장터에서 물건 사고팔기, 음식 나눠 먹기 등
- ③ 상황극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한다.
- ④ 친구들은 발표를 보고 인상 깊었던 장면에 관해 이야기한다.

책 만들기 활동

마을에 사는 ○○이의 이야기

- ① 마을에 사는 인물을 한 명 정하고 그 인물의 하루를 떠올려 상상한다.
- ② 블록 마을에서의 인물의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한다.
- ③ 장면에 맞는 이야기를 적고 사진을 함께 붙여 짧은 그림책을 만든다.
- ④ 완성한 책을 친구들과 돌려 읽고 인상 깊은 장면에 관해 이야기한다.

영상 촬영 활동

우리 마을 이야기
탐라 뉴스!

- ① 모듈별로 만든 블록 마을을 자세히 관찰하며 어떤 집, 장소, 인물, 물건이 있는지 정리한다.
- ② 블록 마을의 모습을 촬영한다.
- ③ 마을의 모습을 나레이션으로 녹음하여 설명한다.
예시) 이곳은 몽골 아주머니와 제주 할머니가 함께 요리하는 곳입니다.
- ④ 완성된 영상을 보고 감상을 나눈다.

▶ 삼별초의 난

고려는 1231년(고종 18) 몽골군의 침입으로 인해 강화도로 도읍을 옮기고 몽골에 저항하였다. 그러나 무신정권이 붕괴하면서 1270년(원종 11) 고려 정부는 결국 몽골에 항복하여 개경으로 돌아왔고, 이때부터 고려에 대한 몽골의 직접적인 간섭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신정권의 군사적 기반이었던 삼별초는 고려 정부의 해산 명령에 불복해 새로운 고려 정부를 세우기로 하고, 몽골과의 대항을 선언한다. 배중손이 이끈 삼별초의 새로운 정부는 강화를 떠나 진도에 자리 잡고 개경의 만월대와 같은 구조를 가진 용장성을 건설한다. 삼별초는 진도를 중심으로 전라도 남부 지역을 거의 손에 넣기도 했으나 결국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여원연합군에 의해 격파당한다.

삼별초는 김통정 장군을 중심으로 제주로 옮겨 항전을 계속한다. 제주는 남송과 일본을 잇는 바닷길 중간 요충지가 꼭 필요했던 몽골(원), 삼별초를 완전히 진압하려는 개경의 고려 정부, 그리고 생존을 위해 제주를 선택했던 삼별초군, 모두에게 절박한 마지막 전투 장소가 된다.

삼별초는 애월 해안에서 남쪽으로 3km 가량 떨어진 구릉지대에 내성과 외성의 이중 구조를 가진 향파두리성을 쌓아 약 3년간 항전을 이어간다. 향파두리성은 한라산의 중산간 지대가 시작되는 곳으로, 남쪽은 높고 북쪽이 낮아 해안으로부터 들어오는 적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전략적인 위치이다. 또 인근에 있는 곽지촌, 명월촌 등 6개의 마을에 당시 제주도 인구의 상당수가 거주해, 성을 쌓는 데 필요한 인력이나 물자를 동원하기 유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1273년 5월, 김방경과 혼도가 이끄는 여원연합군 1만 명에 의해 삼별초는 완전히 무너졌다. 지휘부는 참수되었고 항복한 자들은 육지로 옮겨졌으며, 마지막까지 삼별초를 이끌던 김통정은 한라산으로 들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전해진다.

삼별초에 대한 제주 사람들의 시각은 복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처음에는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들의 착취에 대한 반감으로 정부군에 맞서 삼별초를 옹호했지만, 항전이 이어지면서 삼별초의 생필품과 식량을 마련하고 향파두리성의 축조에 동원되는 등 또 다른 착취로 고통받았다.

▶ 원간섭기 제주

삼별초가 진압되고 고려는 원나라에 조공을 바치는 ‘사위의 나라(부마국)’가 되었다. 고려는 원나라와 유일하게 사대외교를 맺은 나라로서 정치적 실험의 장인 동시에 경제적 수탈의 장이 되었다. 더는 원나라의 침입에 시달리지 않았지만, 고려의 세자는 어린 시절을 원나라의 수도에서 보내고 원 황실의 공주와 결혼해야만 했다. 왕위 계승 등 중요한 정치적 결정에서도 자유롭지 못했다. 일반 백성의 삶은 더욱 고달팠다. 1274년과 1281년에는 원나라가 일본을 침략하는데 필요한 물자를 장만해야 했고, 병사로도 동원되었다. 또 매년 원나라에 바치는 방대한 특산물과 공녀도 준비해야 했다.

1273년 여원연합군이 삼별초를 진압하면서 제주에는 원나라와 고려의 이중 지배를 받게 된다. 원나라는 탐라총관부를 설치해 제주를 직접 다스리고, 몽골 출신의 관리인 다루가치를 파견했다. 원나라는 일찍부터 남송과 일본 정벌을 염두에 두고 제주도의 가치에 주목했다. 100년 가까이 이어진 원나라의 직접 통치는 이후의 제주 역사와 제주 사람들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기존의 지배 세력 외에 원나라라는 새로운 지배자가 제주인의 삶을 더 무겁게 만들었지만, 제주에 새로운 변화 또한 일어났다.

❶ 국영목장 설치

원나라는 한라산 중턱의 넓은 초지가 천연 방목지로 적합하다고 보고 국영목장을 설치하였고, 그 결과 제주에 소와 말을 기르는 목축 산업이 발달한다. 1276년 제주 동쪽 수산평야에 몽골말을 들여와 목장(동아막)을 설치하고, 다음해 제주 서쪽 고산리 일대(서아막)에도 목장을 설치한다.

제주의 목장이 번성하자 사육시설과 운영 인원도 점차 늘어나고, 원나라의 14개 국영목장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된다. 국영목장은 원나라의 세계정복사업에 필요한 군마를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세워졌다. 국영목장에서는 말뿐 아니라 소, 양, 나귀, 낙타, 고라니 등을 키우기도 했다. 이들 동물은 원나라 출신의 ‘하치(목호)’에 의해 사육·방목되었다.

❷ 마을의 형성과 행정단위 개편

1273년 원나라는 군사 700명을 제주로 파견한다. 이후 1차 고려 환속이 이루어지는 1294년까지 제주에는 1,400여 명의 원나라 군사가 주둔하게 된다. 또 목장을 관리하기 위한 목호와 원나라 죄수, 왕족, 관리들이 제주에 들어오면서 제주의 인구가 늘어나게 된다. 인구가 늘어나면서 주로 해안 지역에만 있던 마을들이 중산간 지방에도 새롭게 생겨나고, 제주인의 생활공간이 확장되었다.

행정단위 역시 개편된다. 제주목을 중심으로 제주 지역을 동·서 방향으로 나누어 14개 현(縣)이 생겨난다. 동쪽에는 신촌(新村)·함덕(咸德)·김녕(金寧)·토산(兔山)·호아(狐兒, 현재 남원읍 신·하례리 일대)현, 서쪽에는 귀일(貴日)·고내(高內)·애월(涯月)·곽지(郭支)·명월(明月)·차귀(遮歸, 현재 한경면 고산리 일대)·산방(山房, 현재 안덕면 일대)·예래(猓來)·홍로(烘爐, 현재 서귀포시 서·동홍동 일대)현이 위치했다. 이러한 행정단위 개편은 오늘날 제주 행정단위의 모태가 되었고, 신촌, 함덕, 김녕, 토산, 귀일, 고내, 애월 같은 지명은 오늘날에도 쓰이고 있다.

❸ 제주와 원나라의 혼인

원나라 사람들이 제주에 정착하면서 제주 여성과 혼인하여 가정을 이루는 경우도 많았다. 몽골인 아버지와 제주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은 성인이 되면 목호가 되어 국영목장 운영에도 참여했다. 조선시대까지 제주에는 ‘대원’이나 ‘운남’을 본관으로 삼은 성씨(조(趙)·이(李)·석(石)·초(肖)·강(姜)·정(鄭)·장(張)·송(宋)·주(周)·진(秦) 등)가 남아있었다.

④ 법화사

법화사의 정확한 창건 연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1269년에 중창을 시작해 1279년에 끝났다는 기록이 새겨진 기와를 통해 1269년 이전에 이미 세워졌음을 알 수 있다. 중창이 마무리된 1279년은 원나라가 탐라총관부를 설치하고 제주를 직접 통치하던 시기이다.

법화사에서 출토된 용무늬·봉황무늬 막새는 원나라 궁궐에서 사용된 막새기와 양식으로, 법화사가 단순한 사찰이 아니라 원나라 황실의 지원을 받는 비보 사찰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또한 질 좋은 청자가 출토되고, 원나라 장인이 만든 아미타삼존불상이 봉안되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법화사의 위상이 매우 높았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법화사는 제주에 사는 몽골인들의 종교·정치·사회적 중심점 역할을 했으며, 남송과 일본을 잇는 바닷길의 요충지인 제주 서남부 해안지대에 위치해 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곳이었다.

⑤ 문화의 교류

원간섭기에는 고려의 복식, 음식, 생활양식 등이 원나라에 전해져 유행했고, 원나라의 문화도 고려에 전해졌는데 이를 ‘고려양’과 ‘몽골풍’이라고 한다.

오늘날 제주의 언어와 문화 속에는 몽골과 100여 년간 교류했던 흔적이 남아있다. 제주어 ‘구덕’, ‘테우리’, ‘허벅’, ‘정낭’ 등은 몽골어로부터 유래했고, 말(馬)과 관련된 많은 단어도 남아있다. 술을 증류하는 도구인 ‘고소리’와 메밀로 만든 ‘빙떡’ 등도 몽골로부터 전해졌다고 알려져 있다.

▶ 목호의 난

고려 말, 원나라가 망하고 명나라가 들어서면 혼란기에 명나라와 친선관계를 맺은 고려 정부에 반발해 목호들이 고려 관리를 죽이는 사건이 자주 발생한다. 이때 공민왕은 나라의 자주권과 탐라의 지배권을 회복하고자 한다.

1372년 공민왕은 명나라에 조공으로 바칠 제주마를 징발하기 위해 제주에 관리를 파견한다. 석질리필사, 초고독불화, 관음보 등 목호들은 “원나라를 멸망시킨 명나라에 말을 바칠 수 없다”며 난을 일으키지만, 제주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자들을 죽이고 고려 조정에 말을 바치면서 난은 일단 마무리된다.

그러나 1374년 명나라가 다시 말 2천 필을 요구하자 목호들이 더욱 거세게 반발하게 된다. 이에 고려 정부는 명나라와 친선관계를 유지하고 제주를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최영을 총사령관으로 삼아 목호 토벌에 나선다. 고려 정부군과 목호들은 제주 전역에서 한 달 동안 치열하게 싸우고, 수세에 몰린 목호들은 범섬으로 들어가 최후까지 저항하다 자결한다. 이로써 목호의 난은 완전히 진압된다.

발행	국립제주박물관
개발	국립제주박물관 서진선, 한지윤, 지연아, 이주혜 서귀포여자중학교 한상희, 서귀중앙여자중학교 강인아, 제주중앙초등학교 한지현
감수	국립제주박물관 강민경
편집디자인	더블유프로젝트

이 자료는 국립제주박물관 교육상자 ‘800년 전 제주, 고치 살았수다’ 교사용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담긴 모든 내용은 국립제주박물관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 국립제주박물관